

| 박형준 / 2월 / 도약GS / 8회 | | | | | | | | | | |
|----------------------|--------|------|------|------|------|-------|----|---------|---------|------|
| 반구분 | 수강번호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항 총점 | 석차 | 상위% | 가독성 평점 | 응시인원 |
| 실강+실영상반 | 509117 | 24 | 13 | 24 | 13 | 74 | 1 | 3.13% | 7 | 32 |
| 실강+실영상반 | 509127 | 24 | 13 | 20 | 13 | 70 | 2 | 6.25% | 6 | |
| 실강+실영상반 | 513503 | 23 | 12 | 17 | 14 | 66 | 3 | 9.38% | 6 | |
| 실강+실영상반 | 513620 | 25 | 12 | 18 | 10 | 65 | 4 | 12.50% | 7 | |
| 실강+실영상반 | 509387 | 23 | 11 | 20 | 10 | 64 | 5 | 15.63% | 6 | |
| 실강+실영상반 | 513456 | 23 | 12 | 19 | 9 | 63 | 6 | 18.75% | 4 | |
| 실강+실영상반 | 513684 | 22 | 13 | 18 | 10 | 63 | 6 | 18.75% | 5 | |
| 실강+실영상반 | 513494 | 22 | 11 | 17 | 12 | 62 | 8 | 25.00% | 6 | |
| 실강+실영상반 | 513843 | 23 | 12 | 16 | 11 | 62 | 8 | 25.00% | 6 | |
| 실강+실영상반 | 509120 | 23 | 11 | 16 | 9 | 59 | 10 | 31.25% | 5 | |
| 실강+실영상반 | 513540 | 22 | 12 | 17 | 8 | 59 | 10 | 31.25% | 5 | |
| 실강+실영상반 | 509377 | 23 | 11 | 16 | 8 | 58 | 12 | 37.50% | 6 | |
| 실강+실영상반 | 508888 | 20 | 11 | 18 | 8 | 57 | 13 | 40.63% | 5 | |
| 실강+실영상반 | 513617 | 23 | 14 | 13 | 5 | 55 | 14 | 43.75% | 6 | |
| 실강+실영상반 | 513808 | 22 | 11 | 15 | 7 | 55 | 14 | 43.75% | 5 | |
| 실강+실영상반 | 513445 | 22 | 11 | 12 | 9 | 54 | 16 | 50.00% | 5 | |
| 실강+실영상반 | 514023 | 22 | 11 | 13 | 8 | 54 | 16 | 50.00% | 6 | |
| 실강+실영상반 | 513448 | 22 | 11 | 18 | 2 | 53 | 18 | 56.25% | 5 | |
| 실강+실영상반 | 513434 | 24 | 12 | 14 | 3 | 53 | 18 | 56.25% | 6 | |
| 실강+실영상반 | 508885 | 21 | 8 | 18 | 5 | 52 | 20 | 62.50% | 6 | |
| 실강+실영상반 | 513476 | 23 | 12 | 10 | 5 | 50 | 21 | 65.63% | 5 | |
| 실강+실영상반 | 513769 | 18 | 12 | 10 | 7 | 47 | 22 | 68.75% | 5 | |
| 실강+실영상반 | 513435 | 23 | 11 | 9 | 3 | 46 | 23 | 71.88% | 5 | |
| 실강+실영상반 | 513802 | 23 | 8 | 15 | 0 | 46 | 23 | 71.88% | 6 | |
| 실강+실영상반 | 513439 | 22 | 9 | 9 | 5 | 45 | 25 | 78.13% | 6 | |
| 실강+실영상반 | 513701 | 19 | 11 | 14 | 1 | 45 | 25 | 78.13% | 5 | |
| 실강+실영상반 | 513615 | 19 | 10 | 8 | 7 | 44 | 27 | 84.38% | 4 | |
| 실강+실영상반 | 513630 | 20 | 10 | 12 | 2 | 44 | 27 | 84.38% | 6 | |
| 실강+실영상반 | 513719 | 21 | 12 | 10 | 1 | 44 | 27 | 84.38% | 5 | |
| 실강+실영상반 | 509171 | 21 | 12 | 9 | 1 | 43 | 30 | 93.75% | 5 | |
| 실강+실영상반 | 513602 | 23 | 7 | 12 | 1 | 43 | 30 | 93.75% | 5 | |
| 실강+실영상반 | 513438 | 21 | 11 | 9 | 1 | 42 | 32 | 100.00% | 5 | |
| 실강+실영상반 | 508482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08900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08915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08961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08992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09058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09107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09122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09123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09146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09152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09153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09767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10838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13436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13440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13481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13526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13607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13748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14005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실강+실영상반 | 514042 | 0 | 0 | 0 | 0 | 0 | 33 | 103.13% | #DIV/0! | |

| | |
|---|-------------------|
| <p>박형준/2월/도약GS/8회/1번</p> | <p>채점자</p> |
| | <p>김시연</p> |
| <p>1. 전반적인 총평</p> <p>공동소송 관련 전반적인 문제였습니다. 해당 논점은 주요 논점이니 꼭 정확하게 정리해주세요.</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1</p> <p>공유인 특허권에 대한 심판 청구 시 청구인/피청구인 적격에 대한 문제였고,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이러한 짧은 문제는 결론을 각각 눈에 띄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2) 설문 1-2</p> <p>공유자 중 일부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문이었습니다. 학설로 고필공, 유필공이 있다는 점 적어주셔야 하고, 판례의 태도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었던 논점이나 판례는 최대한 외워서 길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검토와 문제의 소재는 너무 긴 것 보다는 적당히 적어주시고 대신 판례, 사안해결을 더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3) 설문 2</p> <p>심결취소소송에서의 제한설/무제한설 대립을 적어주시고 판례의 태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판례의 태도에서 원칙적으로 무제한설을 적어주시고 예외적으로 결정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제한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적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근소하게 추가 점수 부여하였습니다.</p> <p>(4) 설문 3</p> <p>주 선행발명이 변경된 경우 절차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주 선행발명이 설문 상 불분명하였기에 경우의 수를 나눠서 기재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논리가 타당하다면 다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 |

3. 소결

많은 분들이 다 잘 써주셨습니다. 설문당 배점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들 점수 분량에 맞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해당 문제의 논점은 공유/심결취소소송 관련 매우 중요한 논점이므로 혹시 몰랐던 사항이 있으셨다면 꼭 다시 한 번 제대로 정리해서 기억해주세요.

이러한 논점은 다른 사안에 결들여서 새끼 문제로도 언제든지 출제 될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챙겨주세요.

| | |
|---|-------------------|
| <p>박형준/2월/도약GS/8회/2번</p> | <p>채점자</p> |
| | <p>김시연</p> |
| <p>1. 전반적인 총평</p> <p>심결취소소송 관련 전반적인 논점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소송파트이다보니 배점 분량만큼을 채워주시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심결취소소송은 -> 행정소송이므로 ->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는 흐름으로 기재해주시면 좋습니다.</p> <p>변론주의와 주장책임에 관하여는 다들 잘 기재해주셨습니다. 다만, 결론에서 을이 주장,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기각 판결’이 예상된다고 결론은 반대로 내려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p> <p>문제는 꼭 꼼꼼히 읽어주시고, 이렇게 기각/인용 판결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특히 더 신경 써서 결론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주세요.</p> <p>(2) 설문 2</p> <p>기속력에 대해 기재해주시면 되고,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대부분 다 잘 써주시기 때문에, 분량과 답 틀림이 채점에 크게 작용합니다. 답을 틀리신 경우, 꼭 확인 한 번 더해주세요.</p> <p>(3) 설문 3</p> <p>일사부재리 관련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탐구영역이므로 나름의 논리를 전개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일정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p>분량을 채워주시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 쓸 말이 너무 없으시면 사안 포섭이라도 구체적으로 길게 적어주시면 그나마 답안 인상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p> | |

3. 소결

마지막 회차라서 다들 지치셨을 법한데 끝까지 다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목차의 가독성이나 판례의 분량적인 면에서 초반보다 많이 나아지시는 것이 보여서 채점자의 입장에서 뿌듯했던 회차였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오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 |
|---|-----|
| 박형준/2월/도약GS/8회/3번 | 채점자 |
| | 강경민 |
| <p>1. 문제 3</p> <p>PbP 청구항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례는 비교적 잘 현출해 주셨지만 사안 포섭에 있어서,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p> <p>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bP 청구항의 경우 물건발명으로 ‘특정’을 먼저 하고,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신규성, 진보성, 침해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p> <p>따라서 설문 2의 청구항 2, 4를 비교해볼 때, 제조방법이 잉크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를 언급하여 사안 포섭 해주신 답안이 판례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공부해주세요.</p> <p>설문 3의 경우 발명을 제조방법의 기재로 한정하는 예외 경우를 물어보는 사안입니다. “방법 A로 제조되는 잉크는 잉크 X에 있어서 물질 P를 더 포함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구성 상의 특징이 없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음에도 논점을 이탈하거나, 사안 포섭에서 이 조건을 활용하지 않는 답안이 다소 있었습니다.</p> <p>PbP 청구항 문제의 경우 나올 수 있는 사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주세요.</p> | |
| 박형준/2월/도약GS/8회/4번 | 채점자 |
| | 강경민 |
| <p>2. 문제 4</p> <p>젱슨 청구항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의 공지 여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논점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답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PbP, 기능식, 젱슨 청구항의 경우 자칫 알아차리기 힘든 논점들이므로 문제에서 청구항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특이 청구항 문제는 아닌지 한 번씩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공지인정여부, 사실상 추정 및 복명에 대해 판례와 사안 포섭을 정교하게 작성해주신 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 |

[문제 - 1]

I. 실문(1) - 1)

1. 관련 규정.

(1) 공유 특허권 무효심판 피청구인(법 제139조 2항)
공유 특허권자에 대해 심판 청구시, 공유자 모두를 피청
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공유권자 심판 청구인(법 제139조 3항).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자에 관하여 심판을 청
구할 때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안

(1) 丙 제기 무효심판의 경우

甲과 乙은 특허권을 공유하는 바, 甲, 乙 모두 피청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甲, 乙 제기 권자별 확인심판의 경우.

甲과 乙은 특허권을 공유하는 바, 甲, 乙 모두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II. 실문(1) - 2)

1. 심판취소소송 의의·취지 (법 제186조).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심판의 위법성에 관한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문제의 소재

심판과 달리,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권리가 공유인 경우 명문으로 최고 적격을 규정하지 않은 바, 공유적수적공 동소송인지 유사합수적 공동소송인지 문제된다.

3. 취회

대법원 취회는 무효심판이나 권리변이확인심판의 심결이 공유 특허권자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져 권리의 소멸이 생기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심결취소소송의 제기는 보존행위로 보아 1인의 청구가 가능 하다 하여 유사합수적 공동소송 인정이다.

4. 취회의 순서

i) 공동소송을 강제할 경우 일부가 청구하고자 않으면 불개원 심결이 나오므로 확정되는 부당함이 있고, ii) 심결이 취소된 경우 공동으로 심판 절차를 다시 수행하면 되고, iii) 기각된 경우 심결이 확정되는 바 문제되지 않는다.

5. 검토

보존행위의 경우 1인의 단독 소제기를 승결하는 민법140 조상 취회가 타당하다.

6. 사안

甲 또는 乙이 단독으로 상대방 등의 것이 소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II. 서문(2)

1.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裁判客體)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다.

2. 문제점.

심판 절차에서 심결·판단되지 않은 심결은 위법하게 하는
사유의 주장·입증이 가능한 지, 심결변위가 문제된다.

3. 학설.

(1) 무제한설.

변론주의나 직권판단주의를 근거로 새로운 사유의 주장·
입증은 공격방어방법의 일종으로 가능하다.

(2) 제한설

심결절차주의를 근거로 심판 절차에서 심결·판단되지 않은
사유의 경우 판단이 불가하다.

4. 判例.

(1) 원칙.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준용
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으로 새로운 사유의 주장·입증이
가능하다 하여 무제한설 원칙이나

(2) 예외

당사와 절차권 보장을 위해 일부의 경우 새로운 사유
의 주장·입증이 불가하다 하여 예외적으로 제한설
입장이다.

5. 검토

심결취소소송의 소용불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인 바, 원칙무 제한설을 취하리 예외적으로 당사자를 보호하는 취하위례 도가 가능하다.

6. 사안

당사자 권한권 박탈 위험이 있으므로, 무소 주장 입증에 가 능하다.

IV. 심판(3)

1. 심판 규정

(1) 거절결정불복심판 준용 규정 (법 제 170조)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법 제 63조를 준용한다.

(2) 의견제출기회 부여 (법 제 63조)

심사관은 결정인에게 거절이유 통지후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 거부 (제외)

(1) 심사, 심판단계에서 권한권 보장.

심사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 부여와 심판단계에서의 의견제출기회 부여는 강행 규정이므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 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여

(2) 소송 단계에서 권한권 보장

이와 마찬가지로 소용 전차에서도 심사·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개량안을 주장할 수 없다.

(3) 주된 취리가 부합하는 경우.

다만, 심사·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기 전야후와 주된 취리가 부합하여 보충하는 경우 판단할 수 있다.

3. 주된 취리 부합 판단기준(判例)

선행기술 문헌 동일, 전체사실·구성요소·판단내용이 일치하여 의견서나 보장의 방향이 같아 실질적으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4. 우선행발명 변경(判例)

진보성 판단 시 우선행발명을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판단 내용이 바뀌는 바, 주된 취리가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5. 사안

(1) 우선행발명 변경 여부 ...적극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서 선행발명 2를 근거로 하는 것은 우선행발명 변경이라.

(2) 주된 취리 부합여부 ...소극

우선행발명이 변경된바, 주된 취리가 부합하지 아니하며

(3) 새로운 권리유지 여부 ... 적극

따라서 특허청 소송 수행자가 주장한 것은 새로운 권리유지에 해당하므로

(4) 결론

이에 대해 주권이 불가한 바, 부당하다.

끝.

[문제 -2]

I. 선행 (1)

1. 심결 취소소송 위와 취지 (법 제186조)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특허법원에 심결의 위법성 당부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및 적용 법규

심결은 행정처분이며 이는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3. 변론주의 적용 거부 (判例).

i) 반대 견해가 있으나, ii) 판례는 심결취소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고 판시한 바 있다.

4. 사실의 주장책임 (判例)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그 구체적 사실이 대해 주장책임을 진다.

5. 심결의 복원특성 (判例)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으로 보이며 심판과 심판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6. 사안

i) 2의 경우 변론주의 적용으로 선행기술에 1에 기재한 진보성 위반을 주장하여야 하며, ii) 그와 반하는 경우 주장책임을 2이 패소하게 되며, iii) 법원은 인용판결하여야 한다.

II. 실용(2)

1. 취소판결의 기속력 (법 제 189조 3항).

심판·소송 경계를 위해, 원용 주 심판원은 취소의 기분이 된 이유에 기속된다.

2. 기속력 상세 내용 (판례)

(1) 개원적 범위.

취소의 이유가 된 심적 사실상 및 법률상 관념이 부적합에 있어 발생하며,

(2) 의무

원용 주 심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이유로 동일 심정이 불가하며.

(3) 새로운 증거

새로운 증거의 경우 심판 전과 내지 소송 전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의미한다.

3. 사안.

(1) 선행기소 | 새로운 증거 여부 ... 소극.

원용 전 심판판결에 제출된 바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2) 기속력 발생 및 구속 여부 ... 적극.

인용판결이 확정된 바 발생하며, 객관적 선행기소 인용 후 동일심판 하도것도 기속력에 포함된다.

(3) 결론

실체적 관념이 변하나, 소송경계 상 각각심판이 예정된다.

III. 심판 (3)

1. 일사부재리 의의 · 추리 (법 제 163조).

심판 경계 및 모든 기록 방지를 위해, 본안심결 확정 후 동일 사실 · 증거에 의해 누락된 동일심판 경우는 불가하다.

2. 문제점.

심결 취소 소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 입증하지 않아 심결 취소 후 각각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사실 · 증거 여부가 불리하다.

3. 해결책.

(1) 취소된 무효심결 효력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무효심결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확정된 각각심결 내용

무효사유 주장 ·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된 바,

(3) 결론.

종전 제출한 무효사유는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가 아니다.

4. 사안

(1) 동일 사실 · 증거 여부 ... 심결.

선형기술 1은 확정된 심결과 동일 사실 · 증거가 아니다.

(2) 일사부재리 기록 여부 ... 심결.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기록되지 아니하며

(3) 결론

진보성 부정 판단에 따라 인용심결이 예상된다.

[문제-3]

I. 설문(1) 12

1. PBP 청구항 위시.

제조방법의 한정을 포함하는 물건발명을 의미한다.

2. PBP 청구항 필요성.

- i) 물건발명의 경우 구조 등으로 특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 ii) 생명공학이나 고분자 발명 등의 경우 구조로서 특성이 여러
위 제조방법으로만 특정 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3. PBP 청구항의 종류

(1) 진정 PBP 청구항.

제조방법의 한정으로만 특정되는 청구항을 의미한다.

(2) 부진정 PBP 청구항.

제조방법으로 한정하여 특정할 필요 없이 제조방법의 한
 정을 포함하는 청구항을 의미한다.

4. PBP 청구항 허용 여부.

(1) 구형의 태도.

구 특허법은 법 제42조 4항 3호를 통해 PBP 청구
 항을 불허하는 입장이었으나.

(2) 개정법.

개정을 통해 이를 삭제하고, 법 제42조 6항을 신설하여
 허용하였다.

5. 특허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判例)

(1) 종래 판례.

제조방법으로 한정된 필요가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그 하에 아니한 경우 물건 그 자체로서 해석한다는 입장이었다.

(2) 최근 판례.

1) 발명의 범위

법 제2조 3항에 따라 발명의 범주는 물건발명, 방법발명, 제품발명에 관하여,

2) PBP 청구항의 성질

PBP 청구항의 경우 물건발명에 해당하느냐

3) 물건발명 특징방법.

물건발명의 경우 물건의 구성을 특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4) 제조방법의 의미

제조방법의 경우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징하는 수단으로 의미를 가지고

5) 결론.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든 없든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모든 기재에 의해 특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갖는 물건으로 파악해야 한다.

6.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判例)

(1) 특허요건과 동일

원칙적으로 침해요건 판단 시의 경우도 특허요건 판단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나.

(2) 예외

이러한 해석에 의한 권리범위가 발명의 실체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등 명백히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2보충요건의 법리를 인용할 수 있다.

7. 검토

물론 자체설, 제법한정설, 발명실체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원칙과 예외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를 꾀하는 취지의 태도가 타당하다.

II. 식별(2)

1. 관련 특허요건

(1) 신규성 의미·취지 (법 제29조 1항).

특허는 공계의 대가인 바, 증리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요한다.

(2) 진보성 의미·취지 (법 제29조 2항)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을 위해, 증리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요한다.

2. 청구항별 판단.

(1) 청구항 1의 경우



i) 제법 A가 공지되었다는 사실이 없으며, ii) 제법 A를 통해 제조된 잉크의 경우 변질이 현저히 적은 바, iii) 신규·진보성이 인정된다.

(2) 청구항 2의 경우,

i) 제법 A로 한정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며, ii) 잉크의 경우 변질이 현저히 적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특정한 결과 ii) 잉크 X와 차이로 인해 신규성·진보성이 모두 인정된다.

(3) 청구항 3의 경우,

i) 제법 B의 경우 제법 Y보다 제조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바, ii) 제법 Y와 차이가 있고, 현저한 효과로 인해 신규성·진보성이 인정된다.

(4) 청구항 4의 경우,

i) 제법 B로 만든 잉크의 경우 제조시간 외 물건 자체에 구체적 장점 등이 잉크 X와 차이가 없는 바, ii) 잉크 X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신설성이 부정된다.

3. 甲 출원 등록 적법성

(1) 출원 일체의 원칙

청구항 중 하나라도 거액야유가 있는 경우 출원 전체가 거액된다.

(2) 결론

따라서, 청구항 4의 하자로 등록은 부적법하다.

II. 서문 (3)

1. 특허발명 특성

(1) 발명의 신의 판단

방법 A로 제조되는 잉크는 잉크 X에 있어서 물질 P를 더 포함하는 것 외 변화를 구성상 특징이 없는 바,

(2) 명백히 불합리 여부

잉크 X보다 변질이 현저히 적은 모든 잉크로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인 바,

(3) 결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방법 A로 한정된다.

2. 실시발명 특성.

A와 전혀 다른 방법 C로 제조된 잉크다.

3. 대비

방법 A와 방법 C의 경우 전혀 다른 방법인 바, 방법 C가 A를 이용하거나 물질 P와 균등한 물질을 추가한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사안.

i) 따라서, P가 J에게 한 경고는 부당하다.

ii) P은 위법한 경고에 따라 J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수도 있다.

끝.

[문제-4]

12

I. 진보성 의미·취지 (법 제29조 2항).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을 위해, 공리기술로부터 쉽게 발명이 가능한 경우 등록 불가하다.

II. 선행기술 적격 (법 제29조 1항).

특원 시 공리된 기술의 경우 선행기술 적격을 가진다.

III. 특허발명의 성립.

1. 발명의 성립.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한 결합 발명에 해당한다.

2. 청구항의 성립

전제부와 특징부로 구성된 필수 청구항이다.

IV. 1부 주장 타당성 검토.

1. 문제점.

전제부 기재 사실의 공리기술 여부와 특원 경과 중 공리자인지 문제가 된다.

2. 전제부 사실 공리기술 여부 (판례)

(1) 공리 판례

전제부 구성요소나 배경기술의 경우 공리된 것인 본다는 입장이 있다.

(2) 전합 판례.

1) 전제

공리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며, 신기술 또는

진보성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책임은 갖고, 이는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

2) 결론

청구항의 권리부 기재는 그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권리부 기재 사항만으로 증거기술로 본수 없다.

(3) 검토

객관적 진실 반영을 위해 전항 삭제의 태도가 타당하다.

3. 공리 자인 여부

(1) 삭제

명세서 기재와 출원 경과를 고려하여 출원인이 어떤 기술이 공리기술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사실상 추정이 타당하며, 출원인이 실제 증시되지 않을 것을 착오로 증시된 것으로 진술한 경우 착오는 인정하여 복원 가능하다.

(2) 검토

제판 상 과백의 범위에 준하는 것과 복원에 반극성을 요구하지 않는 삭제의 태도를 타당하다.

(3) 사안

의견서에 기재한 의견으로 A, B, C, D의 공리는 사실상 추상되거나, 착오를 주장하여 추정을 복원할 수 있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뒷면계속]



4. 결론

따라서 선행기술 작적이 부응된다는 주장은 라당하라.

V. 2 주장 라당성 검토.

1. 결합반영 진보성 판단기준 (부합성)

복수의 구성은 분해한 후 개별 구성요소의 공시여부로 판단
해서는 안되며, 결합된 전체로서 구성의 공간성과 효라는 따져
야 한다.

2. 선행기술의 결합요건 (부합성)

선행기술이 결합에 대한 앞서-동기 등이 미시된 사항이 있거나
...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출원시 기술수준 등 제반 사항에 의해 용이하다는 사항이 있는
한 용이하다고 볼수 없다.

3. 결론

특의 공리만으로 진보성 부응 불가하며, 선행기술 1과 2의 결합
용이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VI. 결론

따라서 특 특허발명이 진보성은 인정된다.

<이하 여백>

한당간
관심해결이요 :)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1].

I. 선택(1)-1)

1. 특허가 공유인 경우 심판의 피청구인 자격 - 법 제 129조 2항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게 심판 청구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안

제3자 A가 제기한 무효심판은 B와 C 모두가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3. 특허가 공유인 경우 심판의 청구인 자격 - 법 제 129조 3항

특허권 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가 공유권 내지 관하여 심판은
청구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4. 사안

제3자 D은 상대로 각각 권리범위 심판은 청구하려고
B와 C 모두가 청구하게 되어야 한다.

II. 선택(1)-2)

1. 문제의 소재

△ 심판에서의

상원칙으로서 제기된 법 제 129조 2항 및 3항 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허가 공유인 경우 원고자격이 문제가 된다.

2. 학설

특수판수권 공동소송설 과 배판수권 공동소송설 이 있다.

가판단의 심정 제주시

Ⅱ. 심문(2)

1. 심전척소용의 심리법칙 문제점

특허심판 단계에서 심나팔판다지 않은 사항을 항소로
심전척소용 단계에서 제출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할 때
한수 유무가 문제가 된다.

2. 한문

① 제한한문 특허심전척소용은 항소소용으로 심전의 사후사태의
성립에 의해 심전척소주의 상 심판판결에서 판결되지
않았던 사항은 심전척소용에서 판결판수유판 본다.

② 무제한한문 심전척소용이 소용상 성립해당하고
심판원의 권리범위주이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판판수 있는 심전척소용에서도 심판판결에서 판결되지
않은 사항은 판결판수 안되고 본다.

3. 취소제

취소제는 항소소용인 심전척소용의 소용문의 심전의사태상
인반이제논고로 권고 인가책으로 무제한한문을 취하며,
강제적 전처리가 불확정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심리법칙은 일부 제한하는 입장이다.

4. 권고

심전척소용의 소용문, 심판 소용의 취제. 등 고려하면
무제한한문이 원칙이나, 심전척소용 단계에서는
심판판결에서라 관련 특허권/상표권 및 영업비밀권 보호

2. 주된 시험판권이 변경된 경우 - 제1회

· 심사판권이나 실용특허심판관계법상 권리 행사. 실용특허관계법
이 제1회 거절기유에 기재된 주된 시험판권도 변경하는 경우,
· 실용특허법과 출원법에 따라 등록을 거친 인성의 차이를 극복하여
· 출원법에서는 실용특허법과 달리 "판권"을 판권
· 하게 된다. 따라서 주된 시험판권이 변경되면
· 특정판 사안이 요하는 "이러한" 거절기유나 주된 취지가
· 변경되지 않는 새로운 거절기유에 해당한다.

3. 사안이 하변

(1) 주된 시험판권이 변경된 경우

· 심사판과 의견제출을 동시에 주된 시험판권이 1로 행하는
· 사안이 보이면 시험판 2는 주된 시험판에 변경된 것이므로
· 새로운 거절기유는 제시하는바 주장이 부당하다.

(2) 주된 시험판권이 변경되지 않고 신규

· 심사판이 주된 시험판권을 2로 하여 의견제출을 행한 것은
· 사안이 보이면 주된 시험판권이 변경되지 않고 거절
· "이러한" 거절기유나 주된 취지가 변경되지
· 심사판과 출원법에 따라 등록을 거친 인성의 차이가 리상하다. [끝]

[문제-2]

I. 선택 (1).

1. 선행특허소송의 법적 성질.

특허법은 당사자적. 전사적 분쟁 심판인 해정소송은 이로
심판의 성격이 위법성만으로는 선행특허소송은 항고소송이냐는
특별법인 특허법은 선행특허소송은 심판의 항소심이 아니며
심판과 원판판결이 있다이다.

2. 법 적용

(1) 해정소송법 제 8조 1항

특별법이 없는 유령은 해정소송법은 준용한다.

(2) 해정소송법 제 8조 2항

해정소송법이 없는 유령은 민사소송법은 준용한다.

3. 선행특허소송에서의 사실 주장

(1) 특허

선행특허소송 변론주제는 원판의 하급심이 특허심사청에 의한
선행특허소송 처치에 항소처치하는자가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대해 주장은 해야 하고,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기 않은
사실이 내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제 원판에 위배된다.

(2) 권리

선행특허소송은 민사소송법은 그부 준용하는바 변론주제는
원판에 항이 타당하다.

4. 서안

2이 심전최소성이기서 아무런 주장 입증하지 않아야

법적으로 변론주의 원칙이 입각해 아무런 주장
한 후 오는바 "기각판결" 내려진 것이다.

II 심문(2)

1. 최소판결의 기록력:

법정안판결 및 심판소송제상

최소성이기서 법원이 판결은 한 후 산출된 최소의
기보이 된 이후에 기록하여 기록한다.

2. 기록력의 범위 - 범위

기록력은 최소의 기보이 된 상경의 사실적 법규판결
판결이요라는 점이 반사해 되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최소의 기록판결에서 증거제출이 변하여
새판결을 하는 등판의 사실이 있으면 최소기보이 된
이후에 동판이므로 종전 심판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때 증거는 종전 최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한 사실만
유리한 증거에 해당해야 한다.

3. 심판최소성이 제출되지 않은 증거의 제제론.

(1) 종전 판결.

한 후 전 심판결에서 제기되었지만 심판최소성에 제기되지
않았던 증거는 한 후 전 심판결에서 신변과제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

심판원이 사위당개죄에 인격은 이유로 심판차별은 고대
인용하여 주지심판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취소판결이
기각되어 반사회적용되지 않는다.

(2) 사안

따라서 2이 사위당개죄에서 제2항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는
심판원 1은 제2항에 관한 증거를 인정한다.

4. 결론

2이 심판원 1 제2항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2이 주장은
반대하여, 원의 심판과 동인된 결론은 내건수용으로
심판원으로 기각심판은 내려야 한다.

III 심판 (3)

1. 인사복제기 원판 - 반사회적

- ① 심판의 반사회적 적용에 대해 ② 누락된 ③ 동인증거.
- ④ 동인사실의 의미 다시 심판은 차이를 본다.

2. 인사복제기 원판에

(1) 관련 사실

- ① 취소판결된 무효사건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당해 사건에서 주장되었던 증거 사실은 인사복제기 원판에
객관적 법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고,
- ② 학제인 기각심판은 "무효사건이 주장되었던 사실"은
이유로 취소된 판결이 기각되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사건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특인사건, 동인종거나 복수 요구 인가복제인대기 위배되기 해한다.

(2) 사안

이 부록 상대로 선배기술 1기 기원하여 진보사실에만
이유로 정당한 무효심판은 관사복제기 인가기 위배되기
아니한다.

3. 사안이 해원.

자나서 심판안이 사해할 기이 이대 권보사기 복제된건
판단하면 위무심판 위배한다. [결론]

사해심, 무자종아요!

[문제 -3]

1. PBP 청구항 위배

제1방법은 한정하는 구성은 포함하는 청구항이다.

2. PBP 청구항의 필요성

문제의 구성은 제1방법에 이대만 포함한 안은 제1

제1방법의 구성을 포함하는 청구항이 필요하다.

3. PBP 청구항의 크기

(1) 진정 PBP 청구항

문제의 구성은 제1방법에 이대만 포함한 안은 제1

있는 경우 진정 PBP 청구항이 아니다.

(2) 부정 PBP 청구항

문제의 구성은 제1방법에 이대만 포함한 안은 제1



있지 않은 경우, 복원성 PBP 청구항이나 한다.

4. 비용면제 - 개시방법

본래 항 423 4항 3항이 규정된 삭제하고
항 423 6항 규정은 신성하여 반격의 사유로
 표변은 비왕하되나 PBP 청구항이라는 이유로
 부패되리는 않는다.

5. 청구범위 해석 방법

(1) 항 1.

"물건 자체는 반격으로 봐야 한다는" 물건 자체이고,
 제방법이 기재된 제법으로 한정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제법 한정"과 PBP 청구항이 거의 반격의 신적이
 제 문제가 있고 복원성 PBP 청구항이 거의 반격의 신적이
 제법에 의해 반격신적이거나 파악해야 한다는 "한정신제"라고

(2) 항 2.

특허회기판단시, 제법회기판단의 의의 목적중 하나는 선행특허
 공인해야 한다는 것인것이 라고 파악해야 한다는 예외는 묻게한다

(3) 특허회기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1) 종래 방법

종래기는 물건이 제법으로 제법방법이어서 표변은 ^{해법} 특별히
 사정면제에 따라 2차의 사정인 제법에 만 / 제법
 제법으로 한정하여 있고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 자체라고
 봐야한다고 본다.

2) 권원함의 범위

① 제 2조 3항에서 반역은 '음모반역', '제방법반역', '방법반역'으로 구별하고 있고, '제방법반역'은 음모로 기재하고 제방법은 포함하는 청구방식에 반역 대상으로 취급하는지나 반역의 유형은 '음모반역'에 해당한다.

② 음모반역이 제방법에 기재된 음모의 구체적 특징만을 인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제방법에 기재된 음모의 권리사실을 특정하는 한도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③ 따라서 기재된 구체적 제방법사실로 한정된 것이거나 제방법에 기재된 광범한 모든 제방법에 기재된 용어 포함 구별사실은 구체적 특정한 사실에 한정해야 한다. 이를 제방법에 의해서만 음모로 특정하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한다.

(4) 청구항의 판정시 제방법의 범위 - 취지

청구항의 판정시에도 청구항의 판정방법은 법원 2대로 판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법원에 의해 파악한 권리범위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파악한 반역의 사실에 식별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불충분한 사정이 있으면 제방법에 의한 기재의 범위로 제한하여 권리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II 신원(2)

1. 신규성위반 - 7월 29일 1항

특허공개의 대가인바, 공지가론 또한 수 있다.

2. 제1항반 신원위반여부

(1) 제 1항

방법 A는 잉크 X 보다 변형이 현저히 적은 잉크의 제1방법으로 신규성이 인정된다.

(2) 제 2항

2항은 PBP 제1항으로 변형은 방법 A로 제1항에 확장되는 것과 사면은 같은 잉크로 확장하여야 하는바 신규성이 인정된다.

(3) 제 3항

방법 B는 제1항의 Y보다 제1항으로 현저히 간혹사면 제1항으로 신규성이 인정된다.

(4) 제 4항

4항도 마찬가지로 PBP 제1항으로 변형은 방법 B로 제1항에 확장되는 것과 사면은 같은 잉크로 확장하여야 하는바 방법 B로 제1항에 같은 잉크 X와 변형은 대가인바 잉크 X가 이에 신규성이 부재된다.

3. 등록의 재법성

(1) 특허인해의 위태

제1항을 하나라도 기록이 공개된 경우,

방법 A로 해결되는 문제의 반성이 여러개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있고 방법 A로 해결되는 문제는 결국 문제의
구성상 더 복잡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저히 낮은 복잡성이거나
 특성이 반대의 성격으로 보여서 결국 문제는 무의
 미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3. 권리 타당성.

무의 미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출]

[문제-4]

1. 집문청구항

(1) 의미

전제부나 특징부로 이루어진 청구항을 의미한다.

(2) 사전

무슨 사전이든 좋게 대응하면서 청구항 1항은

전제부나 특징부로 나뉘어진 집문청구항으로 분류하였다.

2. 집문청구항의 전제부 구성-부속

(1) 종대 부속

종대부는 사전에 기재되거나 또는 사전에 종대부가
 기재된 청구항을 통해 본 청구항이다.

(2) 연상 부속

전제부의 기재는 청구항의 결핵의 흐름은 위하여

변명의 요지, 변명의 작용대상물등을 기재하는 등의

4. 사안의 개요

(1) 전제부의 공시성

경시시의 기재가 ^{제출된} 출원인이 보충식 및 타전시를 비롯한
출원거과를 파악해 보았을 때 ^{제출된} 제1의 출원대상 공개되지
안한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전제부의 구성 A, B, C
및 D가 공시되었다는 주장이 복원된 것이다.

(2) 진보성 판단방법 - 제1제부가 해결되는가.

진보성으로 판단할 때 각개의 구성요소는 독립개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상에서 제1제부에서 파악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1제부가 제1제부의 해결되는
것이다

(3) 부의 특허가능성 진보성 여부.

제1의 제1제부인 1의 공시성이 복원된다면 구성 D가
제1제부인 2가 제1제부인 2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제1제부인 1에 비해 이문제는 훨씬 더 큰
제1제부인 2를 있는바 전부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1제부인 1의 공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술상에서 제1제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본여자가 된다

(4) 결론

제1의 특허가능성은 진보성이 있다.

[본문]

— 이하 여백 —

한양대학교
관공하석이민